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광주 발생률·전남 사망률 1위

도로안전시설 미흡·구조체계 열악·의식결여 등 원인

광주는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률에서, 전남은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각각 전국 1위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의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률이 높은 데는 지역 내 도로 안전시설 미흡, 도로 체계 및 구조 열악, 운전자의 의식 결여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68.96건으로 전국 평균 111.36건을 크게 초과했다. 다음이 대구 137.45건, 서울 130.03건, 강원 128.83건 등의 순이었으며, 충남은 가장 낮은 78.61건으로 광주와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전남은 111.26건(10위)을 기록했다.

광주시 지자체별로는 동구가 256.48건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났으며 서구 207.66건, 북구 168.52건, 광산구 153.09건, 남구 131.78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1만 대당 사망자는 전남이 4.80명으로 전국 평균 2.80명보다 2명이 높았다. 경북(4.57명),

충남(4.50명), 전북(4.35명), 강원(3.89명)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이 1.47명으로 가장 적었다. 광주는 2.22명이었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영암군이 자동차 1만 대당 11.22명이 사망해 전남지역 최고를 기록했다.

장흥(11.10명)·보성(10.57명)·구례(9.98명)·담양(9.13명) 등의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을 3배 이상 넘어섰다.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진도도 4.38명이었다.

지난 2008년과 비교하면 광주는 사망자 수가 24명(17.4%) 줄어든 데 반해 전남은 14명(2.9%)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 전국 23만1990건의 교통사고 중 8.82%인 2만475건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전국 도로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전체 사망자 5838명)를 확인한 결과, 지방도로가 2285명(39.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국도와 고속도로는 각각 1666명(28.5%)·397명(6.8%)이었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별 교통사고 현황

순위	시·도	발생(건)	사·도	사망(명)
평균	-	111.36	-	2.80
1	광주	168.96	전남	4.80
2	대구	137.45	경북	4.57
3	서울	130.03	충남	4.50
4	강원	128.83	전북	4.35
5	제주	127.22	강원	3.89
6	전북	115.16	충북	3.52
7	부산	112.17	경기	3.30
8	인천	111.31	경기	2.39
9	경북	111.29	울산	2.34
10	전남	111.26	대전	2.22
11	충북	111.19	광주	2.22
12	울산	105.90	제주	2.21
13	대전	101.04	대구	2.05
14	경기	96.29	부산	2.00
15	경남	92.66	인천	1.88
16	충남	78.61	서울	1.47

월별로는 10월(592명)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2월(405명)이 가장 적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910명)이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759명)이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러시아워 시간대인 오후 6시~밤 10시 사이(1328명)가 가장 많았고, 새벽 2시~새벽 4시 사이(360명)는 가장 적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섬진강서 즐기는 짜릿한 래프팅

21일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변에서 열린 '제3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래프팅대회'에 참가한 한 팀이 급류를 헤쳐나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쭉꽃밭은 쓰레기장 시화거리 낙서판으로 방치된 북구 '아름다운 마을'

광주시 북구가 지난 11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일부 사업대상지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사업 대상지는 주민들이 주체가 돼 운영·관리해야 하지만 관련 체계 구축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사업을 추진한 북구가 '외관 꾸미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지역 곳곳에 37억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일 벽화·담장 허물기·쉼터 및 시와 고사성어가 있는 거리 조성·작은 도서관 운영·문화 달기·시화문화마을 만들기 등 224개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을 벌여왔다.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나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매년 한 개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정해 구에 사업신청을 하면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주민자치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254개 기관·단체 5508명이 견학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구의 허술한 사후관리와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각종 운동의 결과물이 폐허 속에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는 중단됐다.

중흥2동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초 모아 샤프터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최근 입주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도서관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 모아 샤프터 도서관이라는 간판만 남아 있을 뿐 도서관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신안동 주민들도 지난해 11월 신안 철교에 타일벽화와 주변에 철쭉꽃밭을 조성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꽃밭이 쓰레기장으로 바뀌었다. 오정동 주민들은 오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초등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타일에 새긴 뒤 담장에 붙여 '시화(詩畵) 거리'를 꾸몄으나 낙서판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사후 관리비용은 예산이 9300만원, 한해 평균 880만원의 예산이 관리비로 쓰인 셈이다. 중북 사업·전시사업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타일 벽화·쉼터 조성운동이 운동 결과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이 성과주의로 전락하면서 임동 주민센터에서는 광주시에서 예산을 받아 실시한 옹골친 환경정화 사업이 마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했으며 조만간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내부 논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대장내시경 검사 15배·치료 77배

전남대병원 16년간 분석

대장내시경 검사가 16년 사이에 15배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대병원 이소화기내과 김현수 교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45세 이후부터 매년 대변잠혈 반응검사, 직장수지검사를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전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선종)이 발견된 경우 개수에 따라 1~3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 검사 증가에 따른 용종 절제술, 대장 출혈 치료 등 대장내시경적 치료도 1994년 15건, 1999년 70건, 2004년 463건, 2009년 1157건으로 77.1배가 높아졌다.

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김현수 교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해 45세 이후부터 매년 대변잠혈 반응검사, 직장수지검사를 5년에 한 번씩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이전의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선종)이 발견된 경우 개수에 따라 1~3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해돋이 05시 58분
☀️ 해질 19시 12분

🌙 달돋이 18시 14분
🌙 달질 04시 26분

오늘 날씨

뜨거운 처서(處暑)

가끔 구름이 많고 내륙 일부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구분	구름	기온
광주	구름 많음	25/34℃
목포	구름 많음	25/32℃
여수	구름 조금	25/31℃
완도	구름 조금	24/33℃
구례	구름 조금	24/34℃
해남	구름 많음	24/33℃
장흥	구름 많음	24/33℃
고흥	구름 조금	23/33℃
순천	구름 조금	25/33℃
영광	구름 많음	24/33℃
진도	구름 많음	24/33℃
남원	구름 많음	23/33℃
옥산도	구름 많음	23/30℃

구분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	🍷	😞

◇주간날씨

날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2	24/31	24/31	24/30	24/30	24/32

'충장축제' 테마 관광상품 나온다

동구·하나투어 협약

광주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테마로 한 관광상품이 나온다. 광주 동구는 "(주)하나투어와 협약을 통해 광주 충장축제가 개최되는 10월5~10일 호남지역 유명 관광지를 연계한 '충장축제 패키지 관광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

해 추어의 전시관, 추억의 동창회 등 충장축제 주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광주비엔날레·담양 죽녹원·전북 고창 강천사 관광·순창 매실고추장 체험 등 유명 관광지를 거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대명 동구청장은 "30~50대의 문화 갈등을 해소하고, 남도 관광 명소의 진수를 맛보는 멋진 여행코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G20 재무차관 회의 대비

북구, 기초질서 집중 정비

광주시 북구는 G20 재무차관 회의에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기초질서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정비 대상으로는 ▲가로환경 청소 및 불법 투기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 정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4개

분야다. 북구는 지난 20일 G20 재무차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북구는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특별 청소주간으로 지정된 뒤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 계도 활동 및 불법 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 도시주요 관문과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 5·18 민주묘지 주변 도로 등 방문 예정지에 대해서는 불법 노점상·노상 적치물·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북장터

전북구어촌진흥회

☎️ 0621576-8600

이태리 좌탁, 식탁, 책상 전문관

충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업 100% MADE IN ITALY

☎️ 110-0101-010000

주. 스페이스 가구빌딩 7개점